

푸코에 있어 권력과 저항의 문제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를 중심으로

공유진

(서울대 철학과 석사과정)

1. 들어가며

『성의 역사』는 『앎의 의지』(1976), 『쾌락의 활용』(1984), 『자기에
의 배려』(1984)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푸코의 대표적 저서이다.
특히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1: La
volonté de savoir*)는 ‘생명권력’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주제화하면서,
단순히 성과 관련한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권
력의 시대인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책은 푸코가
생각하는 권력과 저항의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어
떻게 권력 속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 글은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같은
‘권력’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글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누어지는데, 전반부에서는 먼저 생명권력 개념에 대해 논의할 것이
다. 생명권력의 특성을 규율권력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 다음(2절),
그러한 생명권력이 ‘섹슈얼리티의 장치’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3절). 후반부에서는 책에 나타난 푸코의 보다
일반적인 권력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푸코가 말하는 권력이란
실체가 아니라 편재하는 권력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4절), 이 권력
망의 도처에 저항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푸코의 이론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저항들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5절).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생명권력을 비롯한 푸코의 권력 모

텔을 『성의 역사 1권: 삶의 의지』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권력 모델이 과연 저항의 실천들이 가지는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는 데 있다.

2. 생명권력: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관계

‘생명권력(bio-power)’과 ‘생명정치(bio-politics)’¹⁾를 빼놓고는 『성의 역사 1권: 삶의 의지』가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권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권력 이전의 권력 메커니즘인 ‘생살여탈권’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푸코에 따르면 오랫동안 군주의 권력은 “신민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통해 특징지어졌다. “군주에게 항거하고 군주의 법을 위반하는 자가 신민의 한 사람이라면, 군주는 그의 생명에 대해 직접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요컨대 생살여탈권이란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둘’ 권리”이며, “군주는 죽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죽일 권리를 보유함으로써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p.146)²⁾ 즉 생살여탈권은 군주가 신민을 향해 ‘만약 네가 나를 위협할 경우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생살여탈권이 일차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대상은 신민의 생명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군주는 “그가 요구할 수 있는 죽음에 의해서만”(p.146)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 행사되는 군주의 권력은 (먼저 죽음의 위협이라는 일차적 여과를 거친) ‘간접적’ 권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성의 역사 1권: 삶의 의지』의 국역본(이규현 역, 2010)에서는 ‘생체-권력’, ‘생체-정치’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한국어 논문들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생명권력’, ‘생명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괄호 속의 영어 번역은 모두 영역본(trans. Robert Hurley, 1990)에서 인용한다.

2) 푸코, M.,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2010. 이하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쪽수만 표기한다.

그러나 고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권력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군주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해졌던 전쟁은 이제 “모든 이의 생명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국민 전체는 생존의 필요라는 명목으로 서로 죽이도록 훈련받는다.” 생명에 대한 권력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은 이제 “사회체가 생명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권리의 이면인 것으로 보이게 된다.”(p.147) 모든 사람들의 생명 그 자체가 권력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목적으로 떠오르면서, 권력은 생명을 통해서 그 발판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죽게 ‘하든가’ 살게 ‘내버려두는’ 오래된 권리가 살게 ‘하거나’ 죽음 속으로 ‘몰아가는’ 권력으로 대체되었다.”(p.149)

푸코는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권력’, 즉 ‘생명권력’이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한다. ① 첫 번째는 “기계로서의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체의 해부-정치(anatomo-politics of human body)”이다. 육체를 유용하고 순응적인 육체로 만듦으로써 통제체제로 효과적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이 해부정치의 목적이다. 즉 해부정치의 핵심은 “육체의 규율(disciplines of the body)”에 있다.(p.150) ② 두 번째는 “종(種)으로서의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의 생명-정치(bio-politics of the population)”이다. 생명정치는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준, 수명, 장수와 더불어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를 살아있는 존재이자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생물학적 삶의 단면들을 조절하는 것, 즉 “인구의 조절(regulations of the population)”이 생명정치의 핵심이 된다.(p.150)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이라는 두 축을 통해 권력은 이제 직접적으로 인구의 생명에 대하여 행사되기 시작한다. “최고 권력을 상징하던 죽음의 오랜 지배력은 이제 육체의 경영과 생명의 타산적 관리로 은밀하게 옮겨간다.”(p.150) ‘육체의 경영’과 ‘생명의 타산적 관리’, 즉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개관계들의 다발 전체에 의해 연결되는 두 가지 전개 의 극”(p.149)으로서 생명권력을 구성한다. 이 때 육체를 규율하는

권력을 ‘규율권력’이라고 부른다면, 『성의 역사 1권: 얌의 의지』에 나타난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푸코에게서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관계는 다소 유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성의 역사 1권: 얌의 의지』에서는 생명권력이 규율권력을 포괄하는 좀 더 큰 범주로서 제시되고 있지만, 『안전, 영토, 인구』에서는 두 권력이 개념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처럼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의 1978년 콜레주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 강의록인『안전, 영토, 인구』에서 규율권력은 먼저 법적인 주권 모델과 대조되는 권력의 유형으로서 제시된다. ‘법적 체계(legal system)’가 단순히 “살인을 해선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선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형태로 형법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규율 메커니즘(disciplinary mechanism)’은 실제로 도둑질을 하기 전이라도 그가 훔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감시와 통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 메커니즘과 상반되는 또 다른 유형의 권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장치(security apparatuses/dispositifs)’이다. 안전장치는 모든 육체들의 전반적인 규율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폐기하고, 대신 어떻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한계 내에서 평균 범칙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절대적인 금지나 모든 것에 대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대신 수치화, 통계, 계산, 예측 등을 통해 사회를 허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³⁾ 따라서 “인간 종의 기본적 생물학적인 특성들이 권력의 전반적 전략의 대상이 되는 메커니즘”⁴⁾으로서 ‘생명권력’은 바로 이러한 안전장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생물학적 인간을 권력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물학적 특성들—출산율, 사망률, 발병률, 평균수명 등—을 통계 수치화하여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3) Foucault, M.,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trans.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4-6.

4) Ibid., p.1.

즉, 『안전, 영토, 인구』에서는 규율 메커니즘과 안전장치가 각각 권력의 한 유형으로서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규율권력과 생명권력도 개념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 영토, 인구』에서 나타나는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관계—동등한 개념적 위상—가 『성의 역사 1권: 얇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관계—규율권력이 생명권력에 포함됨—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장치를 통해서 행사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는 이전까지의 사법과 규율 테크닉을 무효화시키고 단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과 규율의 테크닉을 상당한 정도로 재활성화시키고 변형시킴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이다.⁵⁾ 요컨대 푸코는 사법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 사이의 관계를 (하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다음 하나로 넘어가는) 연대기적인 관계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세 가지 권력의 양식이 함께 활성화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⁶⁾ 따라서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관계가 『안전, 영토, 인구』와 『성의 역사 1권: 얇의 의지』에서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표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생명권력의 행사에서 규율권력의 행사를 함께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권력이 규율권력을 자신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권력으로 인정하든 아니면 자신에게 포함되는 보다 하위의 권력 양식으로 보든, 생명권력은 육체의 규율이라는 전략과 무관하게 행사될 수 없는 것이다.

3. 섹슈얼리티의 장치: 섹슈얼리티 장치를 통한 생명권력의 발현

그렇다면 『성의 역사 1권: 얇의 의지』에서 생명권력이 이처럼 주

5) Ibid., p.9.

6) 진태원, 『생명정치의 탄생—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사회』, 제19권 제3호, 2006, p.222.

요한 주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성의 기술”을 통해 행사되고 있는 권력이 바로 생명권력이라는 점에 있다. 성은 인간을 “육체의 생명과 동시에 종의 생명으로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성의 기술에 따라 “육체의 규율이라는 목적과 인구의 조절이라는 목적을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 조합하는 일련의 다양한 전술 전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다.”(p.158) 이제 섹슈얼리티(sexuality)⁷⁾는 한편으로 삶의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추적되는 대상이자(육체의 규율), 또 한편으로 정치적 조작과 경제적 개입의 대상(인구의 조절)으로 나타난다.(p.158) 즉『안전, 영토, 인구』에서 생명권력이 안전 장치를 통해 특징지어졌다면, 『성의 역사 1권: 앞의 의지』에서는 생명권력이 이른바 ‘섹슈얼리티의 장치’를 통해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푸코는 다음 네 가지 전략의 집합을 이야기한다. ① “여성 육체의 히스테리화.” 여성의 육체를 완전히 섹슈얼리티에 포화된 육체로 분석하고, 히스테리에 빠졌거나 빠지기 쉬운 여성의 이미지(“신경질적 여자”)를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육체를 의로 실천의 영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② “어린이의 성의 교육학화.” 이는 여성 육체의 히스테리화와 비슷하게, “모든 어린이가 성적 활동에 빠지거나 빠지기 쉽다”는 담론과 관련이 있다. 이미 “예비 단계를 밟고 있는” 성적 존재로서의 어린이는 예컨대 수음을 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교육되어야 한다. ③ “출산의 사회화.” 한국의 예를 들자면 과거 산아제한 캠페인이나 오늘날 출산 장려 운동과 같이, 부부의 생식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p.115) ④ “도착적 쾌락의 정신의학화.” 노출광, 페티시스트, 동물성애자 등 다양한 유형의 성적 도착들이 명명되고 등재되었으며(pp.49-50), 이 모든 형태의 비

7) sexuality는 ‘성적인 것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적 욕망, 실천,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한다.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31집, 2003, p.154.) 국역본(이규현 역, 2010)에서는 sexuality를 ‘성생활’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는 실천적인 성행위만을 연상시키는 다소 협소한 번역어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sexuality 개념에 담겨 있는 함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섹슈얼리티’라는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고자 한다.

정상에 대한 임상 분석과 교정 기술이 모색됨으로써 섹슈얼리티는 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상의 네 가지 전략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히스테리증의 여자, 수음에 빠져든 어린이, 산아제한을 하는 부부, 성도착적 성인”이라는 네 인물이 모두 “지식의 특권적 대상으로, 지식의 기획을 위한 표적과 정착지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p.115) 그리고 이들이 ‘지식’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권력’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히스테리, 수음, 산아제한, 도착 등에 대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담론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은 그러한 “지식의 의지에 내재하는 권력의 전략”(p.83)과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푸코의 목적은 어느 시기에 어떤 지식이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정보가 지식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지식의 물적 조건을 재구성하는 것⁸⁾ 즉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을 산출해내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푸코의 작업은 섹슈얼리티라는 구체적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담론화하고자 하는) 지식 의지의 “정치경제학”을 구성하는 것이다.(p.83)

이렇듯 어린이와 성인 남녀는 모두 다양한 유형의 섹슈얼리티—히스테리, 수음, 출산, 도착 등—에 대한 지식의 형성을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지점으로 위치 지어졌다. 이런 점에서 섹슈얼리티는 권력의 장치이자 정치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섹슈얼리티 장치’의 존재 이유는 “육체들을 쇠신하고 한데 모으고 새로 만들고 점점 더 육체에 스며드는 데, 그리고 점점 더 전반적으로 인구를 통제하는 데 있다.”(p.117) 즉 섹슈얼리티 장치는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이라는 ‘생명권력’의 발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법, 죽음, 위반, 상징체계, 주권” 즉 ‘생살여탈권’ 쪽에 있는 것은 피(blood)인 반면에, “규범, 지식, 생명, 의미, 규율, 조절” 즉 ‘생명권력’ 쪽에 있는 것은 섹슈얼리티이다. 생명권력의 섹슈얼리티 장치는 서구 사회를 “피의 상징론(symbolics of blood)”에서 “섹슈얼리티의

8) 밀스, S., 『현제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역, 앨피, 2008, p.136.

분석론(analytcs of sexuality)”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었다.(p.160)

이처럼 섹슈얼리티 장치를 통해 생명권력이 발현된다는 것은 섹슈얼리티와 권력이 서로 반대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흔히 섹슈얼리티는 “권력이 꼼짝 못하게 억누르려고 하는 일종의 자연적 여건 또는 지식이 조금씩 밝혀낼 어두운 영역”(p.115)으로 사유될 때가 많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성이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성을 해방시켜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푸코는 섹슈얼리티가 이렇게 권력의 반대급부로서 자율적인 심급(agency)이나 실체(substance)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섹슈얼리티는 권력이 행사되는 통로에 가까운 것으로서, 우리의 육체에 스며드는 권력의 넓고도 촘촘한 망을 따라서 존재한다. “섹슈얼리티는 [……] 육체의 자극, 쾌락의 강화, 담론의 선동, 인식의 형성, 통제와 저항의 확대가 지식과 권력의 몇몇 중요한 전략에 따라 서로 연쇄되는 광범위한 표면의 조직망이다.”(p.115) 따라서 성을 긍정하고 성적 해방을 논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생명권력의 장치인 섹슈얼리티의 장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다.(p.170) 즉 한쪽에 권력이 있고 반대쪽에 섹슈얼리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생명권력이 발현되는 장소로서 섹슈얼리티의 장치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

4. 권력이론: 도처에 존재하는 권력망

여기에서 푸코의 권력이론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읽을 수 있다. 섹슈얼리티가 실체가 아닌 것처럼, 섹슈얼리티에 의해 행사되는(생명)권력 역시 실체가 아니다. “권력은 손에 넣거나 빼앗거나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간직하거나 멀어지게끔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다. 권력은 무수한 지점으로부터, 불평등하고 유동적인 관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사된다.”(p.103) 푸코에게 있어 권력이란 “단지 개인 사이의

특정 유형의 관계일 뿐”⁹⁾인 것이다. “어느 한 지점에 대한 다른 한 지점의 모든 관계에서” 생산되는 권력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권력은 도처에 있는데, 이는 권력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p.102) “권력망(network of power)”이라는 용어는 이처럼 ‘실체가 아닌 관계’로서의 푸코의 권력 모델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푸코에게서 권력이란 누군가 그것을 쥐고 있으며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하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편재하는 권력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권력과 저항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푸코의 유명한 테제인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가 성립하게 된다. 권력과 저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저항지점은 권력망의 도처에 있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커다란 거부 의 ‘한’ 장소, 가령 반항의 정신, 모든 반란의 중심, 순수한 혁명가의 권위는 없다.”(p.105) 푸코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분법 및 권력과 저항의 이항대립을 거부하고, 광범위하고도 조밀한 권력망의 곳곳에 저항지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망을 통해 권력과 저항의 상호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푸코의 권력이론(이자 저항이론)은 그의 저작 곳곳에서 드러난다. 먼저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국가를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든, 인구/주민(population)이 국가에 대한 혁명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든, 국가보다 더 근원적인 민족(nation)이 스스로 진리의 담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든, 국가에 저항하는 이 모든 행위/담론들은 (결국 그 실천들의 반대급부로서 국가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밀접한 관련 속에 있다. 국가이성(*raison d'État*)의 역사와 그것에 반대하는 대항-통술(counter-conducts)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¹⁰⁾ 1979년 콜레주 드 프랑스 Collège de France 강의록인 『생명정치의 탄생』에서 푸코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이

9) 푸코, M., 『정치와 이성』,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p.82.

10) Foucault, M.,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pp.356-357.

라는 용어를 제안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곧 관계들의 영역을 가리키며 그 관계들은 전적으로 통치성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통치성이란 ‘사람들의 행위를 통솔하는/이끄는(conducts the conduct of men) 방식’으로 정의된다.¹¹⁾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사고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끄는 통치성의 망(권력망)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1979년 10월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강연인 「전체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정치이성 비판“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에 따르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강압’이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을 말 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자유는 ‘권력’에 복종한 것이다. 그는 통치에 순종하게끔 된 것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된 것이다. “그의 자유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한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권력은 그를 통치에 복종시킬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잠재적인 거부나 반란이 없는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¹²⁾

이처럼 권력과 저항이 항상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권력망의 모델은 “한쪽에 권력의 담론이 있고 맞은편에 권력의 담론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또 다른 담론이 있는 것은 아니”(p.111)라는 통찰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푸코는 ‘성을 억압하는 권력이 있으며 그 억압을 극복하는 것이 성의 해방’이라는 통념을 거부한다. 한쪽에 권력, 반대쪽에 섹슈얼리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섹슈얼리티의 장치를 통해 발현되는 생명권력의 망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저항지점들 역시 이러한 권력망 위에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권력-섹슈얼리티 장치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한가? 푸코는 “저항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p.106)를 통해 혁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항지점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어느 정도 조밀하게 흩어져, 때때로 집

11) Foucault, M.,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1979*, trans.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186.

12) 푸코, M., 「정치와 이성」, p.82.

단이나 개인을 들고일어나게 하고 육체의 몇몇 부위, 삶의 몇몇 순간, 몇 가지 유형의 행동을 자극”(p.105)하면서 마침내 “사회 계층과 개인의 통일성을 깨뜨린다.”(p.106)

5. 저항의 문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저항들과의 간극

그렇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저항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주체와 권력“Subject and Power”』(1982)에 따르면 “투쟁들의 주된 목적은 “이러저러한” 권력의 기관, 집단, 엘리트, 계급 등을 공격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권력의 기술과 권력의 형식을 공격하는 데에 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언급을 참조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권력의 기술과 형식을 전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푸코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주된 관심사는 해결들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의 계보학을 탐구하는 데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¹⁴⁾ 그에게 권력의 장치에 저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항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해결책의 목록을 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항 자체가 추상적인 것에 그치고 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성의 역사 1권: 얌의 의지』 끝부분에서 푸코는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메커니즘을 전술적으로 반전시킴으로써 권력의 발판에 대해 육체, 쾌락, 지식의 다양성과 저항 가능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 섹슈얼리티의 장치에 대한 반격의 거점은 성-욕망이 아니라 육체와 쾌락”(p.170)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육체와 쾌락’

13) 푸코, M., 『후기: 주체와 권력』, 드레피스, H. & 라비노우, P.,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역, 나남, 1989, p.302.

14) 푸코, M., 『후기: 윤리학의 계보학에 대하여』, 드레피스, H. & 라비노우, P.,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역, 나남, 1989, p.325.

을 통해 표현되는 전략적 코드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원하기만 하다. “구체적인 투쟁들을 선도하거나 대표하는 주체의 설정이나 투쟁의 핵심세력들을 연합하는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¹⁵⁾ 푸코적 의미에서 저항이라는 것은 이론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

구체적 저항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불분명하다는 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항 가능성 그 자체에 있다. 푸코에게서 저항이란 권력 안의 저항이지, 권력에 대한 투쟁이 아니다.¹⁶⁾ 누구나 생명권력의 섹슈얼리티 장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저항은 그러한 생명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력 효과를 변형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권력망의 도처에 놓여있는, 권력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저항이 과연 근본적으로 그 권력망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푸코식의 저항은 국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그칠 뿐 전면적인 통치성의 변화로는 나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체와 권력』에 따르면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권력의 형식이며, 주체(subject)라는 말에는 “통제와 의존에 의해 누군가에게 종속되는(subject to)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¹⁷⁾ 이런 점에서 ‘권력이 도처에 있고 행동의 주체가 없이 종속적인 주체만 있을 뿐이라면 저항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¹⁸⁾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푸코와 그의 옹호자들은 푸코의 권력 이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푸코에게서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들은 은연중에 권력과 주체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거나¹⁹⁾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권력의

15) 김성연,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과 비판의 의미』, 한상진·오성근 외, 『미셸 푸코론-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울, 1992, p.188.

16) 양창렬, 『생명권력인가 생명정치적 주권권력인가-푸코와 아감벤』, 『문학과사회』, 제19권 제3호, 2006, p.252.

17) 푸코, M., 『후기: 주체와 권력』, pp.302-303.

18) 이구표, 『미셸 푸코-근대적 권력에 관한 극한적 상상력』, 『이론』, 14호, 1996, p.112.

19) Ibid., p.112.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적인 주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푸코는 권력이 없이는 주체도 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자율적’ 주체성의 개념을 가지고 푸코적 의미의 ‘구성적’ 주체성을 비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한 푸코가 ‘권력과 무관한 주체는 없다’고 말할 때 이 주체는 실제적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세뇌당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저항지점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권력망 위에 존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저항과 무관한 주체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푸코가 의도적으로 저항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푸코의 권력이론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다보면, 현존하는 저항들의 의미가 무력화되고 퇴색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다. 사라 밀스 Sara Mills가 잘 표현한 것처럼 “푸코에게 저항은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 속에 이미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이 권력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시켜 가며 억압적인 정권에 저항하는 각 개인들의 실천적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²⁰⁾ 즉 한편에 권력의 담론이 있고 맞은편에 그것과 대립하는 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하는 담론들”을 포함하는 “전술적 요소 또는 연합”만이 있을 뿐이라면(p.111), 실제 억압과 제약을 겪고 있으며 저항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삶 역시 권력망이라는 커다란 전술적 담론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의 부당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시위나, 카다피의 독재에 저항한 리비아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등 실제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개인들의 노력을 한번 떠올려 보자. 푸코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누가 권력을 빼앗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p.108) 이들 저항적 주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권력을 가진 자와 빼앗긴 자가 존재하며, 부당하게 빼앗긴 권력을 다시 전유해 오는 것이 저항의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푸코는 실제로 저항하

20) 밀스, S.,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pp.84-85.

고 있는 개인들을 향하여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은 누군가 손에 넣거나 빼앗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관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사되는 것으로서 도처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권력을 쥐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상정한 다음 그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당신들은 ‘진정한’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에 나타난 푸코의 권력이론은 저항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들을 ‘힘 빠지게’ 만들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실체가 아닌 망으로서의 권력 모델이 아무리 많은 이론적 통찰을 제공하더라도, (그러한 권력망 내에 살면서 권력망의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항하는) 현실의 개인들의 삶과 실천의 가치를 격하시킨다면 그 이론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푸코가 저항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보수주의자였다는 식의 도덕적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푸코의 본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푸코가 생각하는 저항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곳곳에서 ‘권력의 강압’—푸코는 권력과 강압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지만—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저항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노력에 대해 “권력의 참모습이란, 그리고 저항의 참모습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답론은 실천과 유리된 저항이론으로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6. 나가며

이상에서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에 나타난 권력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바, 우선 생살여탈권과 달리 직접적으로 생명에 대해 행사되는 권력인 ‘생명권력’은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육체를 규율하는 권력, 즉 ‘규율권력’은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와 『안전, 영토, 인구』에서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생명권력과 관계 맺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명권력의 행사에서 규율권력의 행사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권력은 ‘섹슈얼리티의 장치’를 통해 발현되며, 히스테리, 수음, 출산, 도착 등 다양한 유형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의 형성을 통해 어린이와 성인 남녀를 권력이 행사되는 지점으로 위치시킨다. 여기서 섹슈얼리티 장치를 통해 생명권력이 행사된다는 점은 섹슈얼리티와 권력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즉 권력이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생명권력의 장치인 섹슈얼리티의 장치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권력의 반대급부에 있는 어떤 자율적인 실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과 연관된 광범위한 조직망에 가깝다. (생명)권력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관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고 도처에 존재하는 ‘권력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권력은 누군가 그것을 쥐고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가 빼앗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점에서 저항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항지점은 권력망의 도처에 있으며 잠재적 저항을 내포하지 않는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푸코는 이러한 저항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를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항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며, 권력망에 편입되어 있는 저항이 과연 그 권력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특히 푸코의 권력망 모델은 저항이 이미 권력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위험성을 지닌다. 실제 삶 속에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은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권력을 실체화시키고 권력을 빼앗아오고자 하는 당신들의 노력은 진정한 저항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푸코의 이론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천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푸코를 옹호하는 폴 벤느Paul Veyne의 글에 따르면 푸코는 “사람들의 실천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²¹⁾ 노력한 철학자이다. 그

는 푸코적 의미의 ‘실천’을 “빙산의 숨겨진 부분”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매우 전개념적이며 생각 없이 볼 때는 풍성한 주름에 가려서 일부만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다. 빙산의 숨겨진 부분은 솟아난 부분과 다른 심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부분은 모두 얼음으로 되어 있다. 숨겨진 부분은 다만 한계시야의 밑에 있을 뿐이다.”²²⁾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성의 역사 1권: 앞의 의지』 역시도 ‘빙산의 숨겨진 부분’을 보여주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명권력도, 섹슈얼리티도, 그리고 일반적인 권력과 저항도 별도의 심급이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와 가지지 못한 약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권력의 실체도 저항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실천과 충분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가? 일상 곳곳에서 ‘권력의 실체’와 마주하며 바로 그 ‘권력에 의한 억압’을 느끼고 있는 개인들을 향하여 권력의 개념을 전복시키라는 요청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요컨대 빙산 위에서 싸우기도 벅찬 사람들에게 빙산 아래를 보지 못하면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성의 역사 1권: 앞의 의지』에 담겨 있는 풍부한 이론적 통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빙산 아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권력이 네트워크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권력을 실체화하여 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실천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민중’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푸코가 말하는 실천과 현실에서의 실천 사이에 느껴지는 이러한 간극은 과연 푸코를 ‘실천의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망설이게 만든다.

21) 벤즈, P., 『부록: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상길·김현경 역, 새물결, 2004, p.468.

22) Ibid., p.469.

참고 문헌

- 김성언,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과 비판의 의미」, 한상진·오생근 외, 『미셸 푸코론-인간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한울, 1992, 124-192쪽.
- 밀스, S.,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역, 앨피, 2008.
- 벤느, P., 「부록: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상길·김현경 역, 새물결, 2004, 453-507쪽.
- 양창렬, 「생명권력인가 생명정치적 주권권력인가-푸코와 아감벤」, 『문화과사회』, 제19권 제3호, 2006, 238-254쪽.
-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31집, 2003, 149-177쪽.
- 이구표, 「미셸 푸코-근대적 권력에 관한 극한적 상상력」, 『이론』, 14호, 1996, 97-123쪽.
- 진태원, 「생명정치의 탄생-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화과사회』, 제19권 제3호, 2006, 216-237쪽.
- 푸코, M., 「후기: 주체와 권력」, 드레피스, H. & 라비노우, P.,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역, 나남, 1989, 297-319쪽.
- _____, 「후기: 윤리학의 계보학에 대하여」, 드레피스, H. & 라비노우, P.,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역, 나남, 1989, 321-354쪽.
- _____, 「정치와 이성」,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4, 49-83쪽.
- _____,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2010.
- Foucault, M.,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Books, 1990.
- _____,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trans.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_____,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1979*, trans.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